

# 교사불심 전국 조직망 구축

### 교사불자련 16개 광역시·도에 지부 창립 출범 9년만의 결실... 조직 강화 박차



울 2월 열린 전국교사불자련연합회 정기총회.

교사불심이 전국 조직망을 구축했다. 전국교사불자련(회장 신연섭, 이하 교사불자련)은 4월 23일 울산 정보사에서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불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불교세가 약한 이 지역에 울산광역시 교사불자회의 깃발을 세웠다. 이로써 교사불자련은 출범 9년 만에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1곳 이상의 지부를 마련,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히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체제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도 울산교사불자회의 이번 창립은 교사불자련이 올 한해 중점사업으로 내건 '조직 강화'에 부응한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교사불자련은 올 2월 김제 금산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미결성 지부·지회 창립 지원과 '불자 1분

더 모시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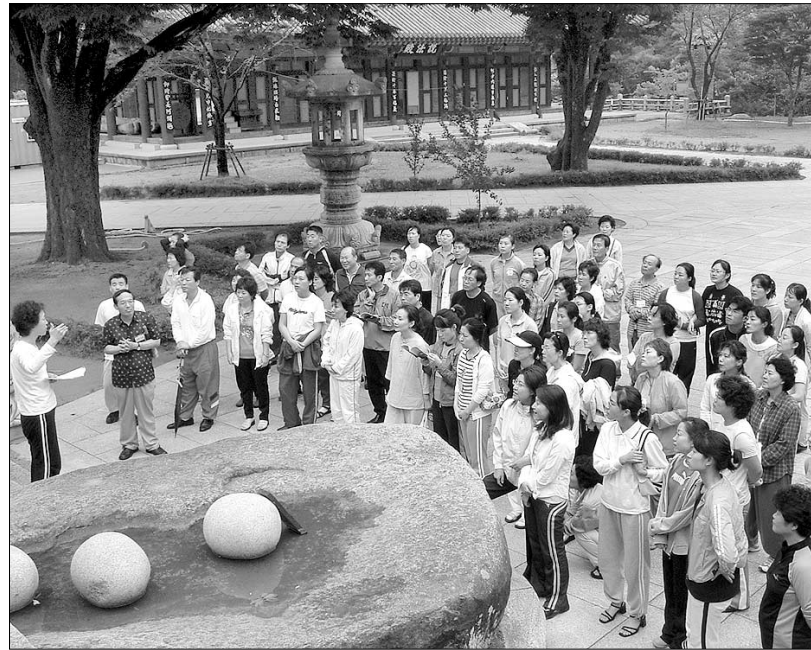
또 울산에 이어 목포 속초 울진 등에서 잇따라 지부 창립을 지원하는 등 신생 불자회 창립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갔다는 뜻도 함께 했다.

울산교사불자회 창립을 계기로 울산 문수교는 "울산교사불자회 창립은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울산, 광주 등 인근 지역 교사불자회와 상호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사불자련이 괄목한 성장을 보일 수 있던 것은 서울·경인교사불자회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1998년 교사불자련의 출범 모태가 됐던 서울·경인교사불자회는 1997년 창립 이후, 각 지역 교사불자회 창립과 교사불자들의 신생활을 돕는 프로그램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포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들 중심으로 전국의 교사불자회 창립 상담 활동을 전개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인터넷 교사불자회 사이트를 카페(cafe.daum.net/buddha)로 일원화해 유기적 관계를 증진시켰다.

또 불자회별 사찰참배 등의 소모임 활성



울초 금산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전국교사불자련연합회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화, 지역별 직장·직능불교단체와의 연계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교사불자련의 전국조직 완성에는 향후 활동의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2월 새로 출범한 5대 중앙집행부는 먼저, 2007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조직 강화' '동료교사 및 청소년 포교'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관람 '교사불자가 걸어온 길' 발간해 10년간 진행해온 사업과 남긴 발자취를 기록하는 한편,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안내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 일터가 도량입니다

### 열차에 불심 신고 달린다

성북승무사무소 법무회장 박우락 기관사

그는 바빴다. 승선을 기다리는 기관사들로 붐비는 열차운영팀 사무실에서 다음 열차 운행시간을 확인하고, 내주 월요일에 잡힌 선재동자련 정기자원봉사 일정을 법무회원들에게 일일이 공지하느라 비좁은 사무실 복도를 분주히 오갔다.

잠시 틈도 났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 최근 법무회에 들어온 신임회원 10명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신형수첩에 메모했다. 새로 법무회 식구

론 동료들에게 '너털 도사'로 통한다.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 특유의 낙천적인 성품 때문이다. 주변에서 뭐라 하며 비난해도 웃어버린다. 좋은 삶 단 한 순간도 머릿속에 오래 담아두는 법이 없다. 그대로 흘러보낸다. 방학적이다.

"기관사 업무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수시로 무전연락하고, 신호 받으며 안전사고를 경계해야 하니깐요. 그러니 동료 기관사들



성북승무사무소 법무회장 박우락 기관사가 전동차 기관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철도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다.

가 된 젊은 기관사 불자들에게 신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1995년 법무회 창립을 주도 한 뒤, 회장직만 내리 4번을 한 베테랑 일터불자의 관록과 배려가 알려졌다.

철도공사 성북승무사무소 법무회장 박우락 기관사(58·해남). 철로를 일터 삼아 온 지 34년째인 박 기관사는 오늘도 인천행 새벽 6시 17분 전동차를 어김없이 안전왕복운행하고, 오전 내내 '일터도량' 안팎을 살피고 있었다.

"선원 어른스님들이 선방 대중들의 수행정진을 위해 경책도 하고 독려도 하잖아요? 또 스님들은 그런 선방 분위기에서 화두를 치열하게 들고 정진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요. 회장으로서는 법무회원들이 일터를 도량삼아 신나게 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이지요."

박 기관사의 웃는 낯에서 깊은 자비심이 묻어났다. 그래서일까? 박 기관사는 40여 명 법무회원들을 물

이 늘 긴장상태에 있으니 민감하지 않겠어요? 전 다 받아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두 번 외고 들어주면 내리 4번을 한 베테랑 일터불자의 관록과 배려가 알려졌다.

그런 박 기관사에게도 일터에서 겪는 고충은 있었다. 기관사 초창기 시절, 심야 화물열차를 운전할 때 그만 두고 싶은 충동에 하루하루를 지냈다. 또 기관사라면 달고 사는 허리디스크와 위장병으로 철도 인생을 절고도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 마음 같은 불교가 박 기관사의 지친 심신을 다독였다. 30년 넘게 읽어온 <반야심경>과 <대승론>이 힘이 됐다.

"불교는 생활이죠. 일터신행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따로 시간 내어 믿고, 배우는 것이 불교도 신행도 아닐 겁니다. 그대로 일터에서 실천하는 불교가 100% 생활불교이지 않나요. 불교는 제 삶이고, 기관사는 그 삶의 방향타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글·사진=김철우 기자



국회 정각선원 개원 11주년 법회

국회 불자위원들의 신생활모임인 정각회(회장 이용희)는 5월 1일 국회 지하법당에서 영주 부석사 선원장 근일 스님을 초청, 정각선원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

다(사진). 정각회원, 국회직인신도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근일 스님은 "나라 법을 만드는 입법 분야 불자들은 중생심을 헤아리는 부처님 마음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법문했다. 김철우 기자

### 광주·전남 농협불자회 출범한다

5월 27일 광주 항림사에서 창립

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불자회는 올 초부터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100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 농협 불자를 대상으로 신임회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남 지역 미창립 농협불자회의 창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에 지역사찰을 돌며 주지스님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강운구 회장은 "광주·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미약한 곳이지만, 농협 불자들이 중심으로 불교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앞으로 매월 정기법회와 분기별 산사체결 등의 수련법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062)220-7671 김철우 기자

## 제4기 불교의식 (범음·범패)학인모집

**초급과정 3개월**  
사울(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 법도량식, 쇠송, 상단예배,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음,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대비식 등(초범음, 범패)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신구재, 예수재, 수록재(전문직 범음·범패)

◆ 모집 : 수시모집  
◆ 매주강의요일 : 화, 목(오후 5시~7시)

본원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자경 강주 김도진 회상

###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록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서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http://www.durianshop.com)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 모집공고

■ 모집대상 : 총무스님  
■ 자격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 비구 혹은 비구니  
■ 제출서류 : 승려증사본  
■ 예우 : 5년이상 주석사 화엄불교대학 승계 혹은 별도사찰 책임불사 승계  
■ 기타문의 : 회주스님 친견후 결정

**화엄 불교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중**

**강의내용**

▷ 초급과정 : 불교입문 및 천수경반  
▷ 중급과정 : 금강경 및 육조단경반  
▷ 고급과정 : 법화경 및 화엄경반  
▶ 참선과정 : 선요 및 실참

※ 화엄불교대학은 대한불교 최초로 천이백나한을 은행나무 목조각으로 조성 봉안한 도량임

### 종교법인 화엄불교대학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 3동 861번지  
전화 053)754-4962 / 휴대폰 010-9511-4963